



고려인삼의 고유이름은? 그리고 모양은?



글 김무열 평화방송 편집위원



우리 조상들은 고려인삼으로 이름 지어진 우리나라 인삼을 ‘삼’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우리인삼의 고유이름인 ‘삼’의 어원이나 사용연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동의보감(東醫寶鑑), 제중신편(濟衆新篇)이나 방약합편(方藥合篇)에 인삼이 “삼”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삼’이 당시의 상용명칭이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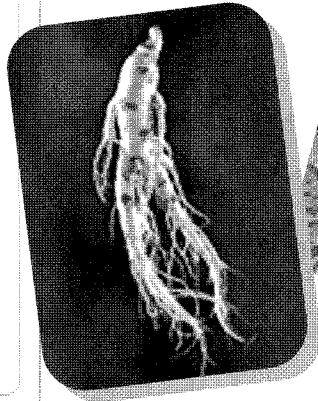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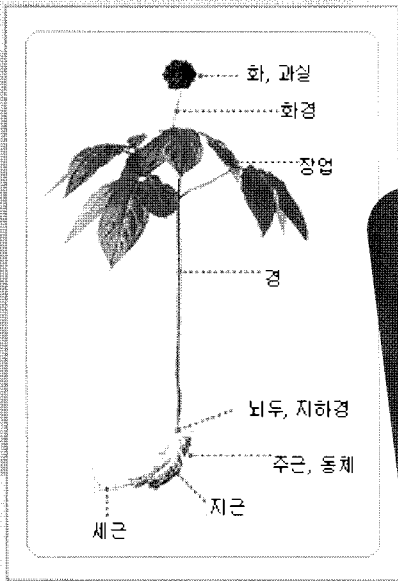
또한 ‘삼’은 지금까지도 산삼 채취인들 사이에서는 산삼을 칭하는 은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들 또한 심마니로 불리우고 있다.

고려인삼(人蔘)의 “人”자는 인삼의 뿌리 형상이 사람의 모양을 닮았다하여 생긴 것으로서 삼을 표시하는 한자는 參, 蔘등으로 중국 문헌에 기재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인삼속의 식물종(種)은 6~7종으로 알려져 있으나 상품용으로 재배되어 세계시장에서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인삼종(ginseng species)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한국을 비롯한 중국 등 극동아시아에 분포돼 있는 고려인삼종(Panax ginseng C.A. Meyer)을 들 수 있다.

나머지 둘은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나오는 화기삼(Panax quinque folium L)과 중국 남부지역에서 재배되는 전칠삼(panax notoginseng F.H. Chen)이다.





고려인삼 뿌리는 어떻게 생겼을까?

고려인삼 뿌리의 전체적인 형태는 그림 (그림을 꼭 실을 것)에서 나와있듯이 주근(主根) 이외에도 뇌두(腦頭), 지근(支根), 측근(側根), 근모(根毛) 등으로 이뤄져있다. 이에따라 전체적인 뿌리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고려인삼은 성장하는 동안 형상이 변한다.

1차년도에는 뿌리가 비대해지면서 30~40개의 지근이 난다.

2차년도 이식하는 동안 지근은 모두 끊고 주근만 심으면 다시 지근이 나오는데 3차년도에는 이 주근의 신장과 지근의 수가 고정된다.

이어서 4~5년간 재배시에는 주근이 비대해지고 지근과 세근의 생장이 촉진되어 인삼 특유의 형상이 완성된다.

홍삼으로 가공되는 6년근은 뇌두의 형태가 견실하게 되고 동체는 길이 7~10cm, 직경 2~3cm, 몇개의 지근을 가지며 뿌리 전체의 길이는 34cm, 무게는 40~120g에서 때로는 300g에 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삼이 7년 이상 자라게 되면 비대 성장은 더디어지고 체형이 불량해지며 표피는 목질화된다. 또 가공하였을때 속이 비거나 속이 하얗게 변한다. ㉓